

##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이 병 직\*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이본의 계열과 변모 |
| 2. 이본의 현황과 善本 | 5. 맺음말        |
| 3. 이본의 대비와 특징 |               |

### 국문초록

이 글은 〈이현경전〉의 이본을 소개 검토하여 善本을 선정하고, 주요 이본을 대비하여 계열을 살펴본 뒤 후대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필사 간기가 앞서 보이는 이본 작품 명칭이 〈이현경전〉이고, 18세기 소설 상황을 알려 주는 문헌에 ‘니현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작품 명칭은 〈이현경전〉이 바람직하다.

善本은 완본의 형태이고 다른 이본에 비해 오탈자나 첨가가 적은 기축년에 필사된 사재동 A본이 타당하다. 사재동본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특징인 여성우월 남성열등의 남녀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입공서사가 온전히 구사되어 있으며,

\* 부산 금성고등학교 교사

이현경의 남장 노출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과 결혼 이후 갈등이 장황하게 펼쳐진다.

이밖에 경북대본은 정자의 궁체로 필사되어 있고 표현이 정제되어 있다. 세부 장면 묘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물간의 관계가 세밀하고 성격 묘사가 생동적이다. 전반적으로 이현경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우월하지만, 남성 인물의 자존심이나 가부장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활자본은 이현경 수학담의 유무에 따라 8회본과 12회본으로 나뉜다. 8회본은 이현경 수학담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양충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다. 활자본 역시 장면이나 인물의 세부 묘사에서 내용이 축소되었고, 남녀간의 갈등이 완화되어 있으며 남성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현경전>은 가상의 모본에서 전승되어 단국대본, 박순호본, 사재동 A·B본이 한 계열을 이루고, 경북대본이 또 한 계열을 이룬다. 활자본은 사재동본을 계승하되 경북대본을 참조하여 다시 8회본과 12회본 두 계열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이본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다.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이현경전>이 초기 작품이고, 대중적인 흥미가 후대 여성영웅소설의 인기에 밀려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현경전>은 후대로 갈수록 사건의 세부 묘사가 생략되거나 축소되고, 인물 관계에서 남성의 체통이 강조되거나 부각되며, 문체 및 표현에서도 초기 필사본의 정제되지 않은 어투가 후대에는 정제되고 순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주제어 : 이현경전, 사재동본, 경북대본, 활자본, 善本, 이본의 변모

## 1. 머리말

여성영웅소설 연구는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도 계속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현경전>도 여성영웅소설에 속하는 작품으로 이른 시기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작품은 여성영웅소설과 관련하여 유형 분류, 형성 및 계통에 관한 연구 등 부분적으로 고찰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1)</sup>

18세기 전반 소설사적 정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여와전>에 이현경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현경전>은 18세기에 이미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그런데 <이현경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초기 작품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소설사에 정확히 자리매김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그 이본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학 도서관에 소개되어 있는 자료 목록 중 잘못 알려져 있는 작품도 있다.<sup>3)</sup> <이현경전>의 이본에 대해서는 사재동 교수가 처음 언급하였다. 사재동 교수는 이본으로 <이현경전>·<이상서전> 등이 있고, 활자본으로 <이학사전>이 전하며, 명칭은 <이형경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필사본은 1889년 및 1905년에, 활자본은 191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걸쳐 널리 유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4)</sup> 강진옥 교수는 <이현경전>의 이본인 사재동 A·B본과 12회 구활자본을 대비하여 개작 방향을 다루고 있다. 사재동 A본이 탈자와 오자가 많이

1) 1990년대까지 연구성과에 대한 정리는 박은화, 「「이형경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2-6쪽 참조.

2)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246-262쪽 참조.

3)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산문고에 <이학사전>으로 분류 소장되어 있는 작품은 필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소설 내용이 <이학사전>이 아니라 <보심록>으로 파악된다.

4) 사재동, '이형경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54쪽.

나타나는데 비해 B본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정리되었으므로 사재동 B본이 A본을 보고 필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어 女道와 결혼을 둘러싼 갈등과 의미를 심화시켜 작품의 이해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다.<sup>5)</sup> 박은화는 사재동 A·B본, 박순호본 등 필사본 3종과 12회 활자본 1종을 대비하여 그 선후 관계를 밝히고 작품을 분석하였다.<sup>6)</sup> 각 이본의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한 점은 높이 인정되나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재동 A·B본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 영향 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재동 B본의 필사년을 1905년과 191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필사 후기를 정밀히 보지 못한 오류이고, 작품의 형성을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 생각된다.

전용문 교수는 8회 활자본 <이현경전>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을 연구하였다. <이현경전>을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후대에 해당하는 ‘남성지배 여성영웅담’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그 구조적 성격을 ‘남성지배여성영웅형’ 구조와 혼사갈등적 구조가 혼합된 형태로 파악하여 분석한 뒤, 주인공 성격은 고전소설 주인공 가운데 가장 후대적인 면모에 가까우며, 작품의 형성 시기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sup>7)</sup> 초기 연구 성과로서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깊게 한 의의는 있지만 최근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진행 결과로 볼 때<sup>8)</sup>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 중 초

5) 강진옥, 「이현경전(이학사전) 연구-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6) 박은화, 앞의 논문.

7)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8) 정병설 교수는 <설경전>과 <이현경전>의 예를 들어 여성영웅소설의 사적 편년을 17세기 말 또는 18세기 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209-214쪽.) 류준경 교수 역시 이 두 작품을 근거로 하여 18세기 이전에 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기반하지 않은 여성영웅소설이 출현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7-12쪽.)

기 작품으로 논의되므로 형성과 관련된 점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과제이다.

이밖에도 분석심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해석하거나,<sup>9)</sup> 주동인물의 세계인식과 자아실현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논의하거나,<sup>10)</sup> 여성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 및 여성영웅소설 전반을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sup>11)</sup>

개별 작품의 연구 성과는 작품의 의미를 다각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른다. 먼저, 한 두 편을 제외하고 기존 연구가 대체로 활자본을 텍스트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실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활자본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필사본과 같을지라도 세부 묘사라든지 문체의 차이로 인한 인물 성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 텍스트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이현경전>에 대한 이본 연구라 하더라도 이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각 이본간의 같은 점이나 차이 등 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현경전>의 형성 시기를 대체로 19세기 후반으로 파악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최근 여성영웅소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현경전>은 19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 문제는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현재까지 파악된 <이현경전>의 모든 이본을 소개 검토하면서 善本을 선정하고, 주요 이본을 대비하여 계열을 살펴본 뒤 후대의 변모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김충실, 「「이학사전」 연구」, 『연구논집』 13, 이화여대 대학원, 1985.

10) 박형애, 「<이학사전>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1)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논문, 2004 ;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5 ; 전이정, 「여성영웅소설 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9.

## 2. 이본의 현황과 善本

### (1) <이현경전>의 이본 현황

필자가 다룬 <이현경전>의 이본<sup>12)</sup>은 필사본 5종과 활자본 2종이다.<sup>13)</sup> 이 중에 단국대본과 경북대본은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다.

#### ①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李學士傳>(경북대본)

표제는 ‘李學士傳’이고 쏘 2권이며 계묘년에 필사되었다.<sup>14)</sup> 1권은 51장, 2권은 43장으로 도합 84장본이다. 1권 20장 앞까지는 평균 7행×23자로, 1권 20장 뒤부터 2권 끝까지는 평균 8행×23자로 필사되어 있다.<sup>15)</sup> 1권과 2권의 내제는 ‘니혹스전권지일’, ‘니혹스전권지이’로 표기되어 있다. 2권 끝에는 후기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있으며, 계묘년에 필사하였다는 간기가 있다.

경북대본은 궁체의 깨끗하고 단아한 정자로 필사되어 있으며, 소설을 필사한 사람은 고소설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전개가 매끄럽고 화제를 전환할 경우 화설, 재설, 일일은, 차설 등과 같은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다.

#### ②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이현경전>(단국대본)

필사본 1책(63장)이며 완본이 아니다. 표제는 ‘李賢景傳’이고 내제는 ‘니현경전 권지일 창을괴봉’<sup>16)</sup>이다. 글자수는 11행×21자(평균)이고 경진

12) 1906년 4월부터 8월까지 『대한일보』에 연재된 <여영웅>은 <이현경전>을 바탕으로 내용을 완전히 개작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본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용호, 「개화기 국한문소설 <여영웅> 연구」,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7-351쪽 참조.

13) 구활자본의 이본 현황에 대해서는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530쪽 참조.

14) 필사 하한선은 1903년으로 볼 수 있다.

15) 전체 글자 수는 약 32,900자이다.

16) 사제동 A본의 내제도 ‘창을괴봉’인데, 이현경과 장연의 前身이 각각 문창성과

시월에 필사한 기록이 있다.<sup>17)</sup> 단국대본은 <이현경전> 전체 서사에서 천자가 이현경과 장연을 결혼시키기 위해 두 사람에게 글짓기 시험을 벌이는데, 이현경이 글을 다 지어 바치자 천자가 이미 장연의 글을 읽는 대목까지 필사되어 있다.

단국대본은 사재동 A본과 B본에서 각각 생략된 구절과 문장들이 현전하는 이본에 모두 있다. 필사하다가 빠뜨린 글자는 행의 오른쪽에 추가로 써 놓은 것이 곳곳에 있는 점으로 보아 단국대본이 사재동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본을 보고 필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③ 박순호 교수 소장 <이현경전>(박순호본)<sup>18)</sup>

61장 미완본으로 내제는 ‘이형경전 권지’이고, 11행×22자(평균)로 필사되어 있다. 분책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앞과 뒤 부분은 낙장이다. 이현경이 벼들과 시를 창화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유모가 혼인하기를 권하지만 현경이 화를 내며 평생 남북으로 늙고자 하는 대목부터 필사되어 있다. 이 대목은 사재동 A본 상권 3장 뒷면 후반부에 해당하며, 약 3장 분량이 낙장이다. 소설이 종결되는 부분은 이현경이 시가에서 돌아와 있을 때 아우 연경이 장소저를 박대하며 박홍의 딸을 몰래 구하여 결혼식 당일 현경에게 인사하다가 질책받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사재동 A본 하권 39장 앞면에 해당하며, 약 17장 분량이 부족하다. 본문 뒤에는 (영인본 525쪽 이하) 편지글이 이어져 있다.

④ 사재동 교수 소장 94장 <이형경전>(사재동 A본)<sup>19)</sup>

표제는 ‘李馨慶傳’이고 上·下 2권이며 기축년<sup>20)</sup>에 필사되었다. 上은 39

---

태을진이므로 이를 줄여 ‘창을괴봉’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나 한다.

17) 필사 하한선은 1880년으로 볼 수 있다.

18)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제40권, 오성사, 1986.

19) 이본을 제공해주신 사재동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 선행 연구에서는 1889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 下는 55장으로 도합 94장본이며, 평균 13행×18자로 필사되어 있다. 상권의 내제는 ‘니형경전 권지일 창을괴봉’이고, 하권의 내제는 ‘이형경전 권지이 창을괴봉’이다. 하권의 22장 앞에 본문이 끝나고 “괴축지월 엄소일 추필 낙셔노라 글시 망척흐다 보시는 이 글시 웃습논듯 흐소이다”라는 필사기가 있고, 22장 뒤 시작하는 지점에 ‘니형경전 권지이 창을괴봉’이라 하여 다시 권이 나누어져 있다.

하권 55장 뒤에 본문 내용이 완전히 끝나고, 선비 유안의 처가 이 전을 지어 전파한 사연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어 필사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⑤ 사재동 교수 소장 114장 <이현경전>(사재동 B본)

표제는 ‘李賢卿傳’이고 上·下 2권이며 을사년<sup>21)</sup>에 필사되었다. 上은 70장, 下는 44장으로 도합 114장본이며, 상권은 평균 9행×22자, 하권은 평균 10행×20자로 필사되어 있다.<sup>22)</sup> 상·하권의 내제는 각각 ‘니형경전 권지상’·‘니형경전 권지하’로 되어 있다. 상권 앞 장에는 필사자의 부친이 임자년에 쓴 필사기가 있고, 하권의 44장 뒤에는 본문이 끝나고 역시 사재동 A본처럼 선비 유안의 처가 이 전을 지어 전파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 필사자의 후기가 있다. 필사자의 후기 사이에 필사자의 부친이 쓴 필사기가 또 있으며,<sup>23)</sup> 45장 이후에는 ‘스친도’가 부록으로 있다.

21) 선행 연구에서는 1905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22) 글자 수는 약 46,000자이다.

23) 소설 서두에 필사자의 부친이 임자년에 쓴 서문이 있고, 필사 마지막 쪽에 “① 망녀 박실의 십육세 필적이니 우년 ②세지 을스 팔월 초칠일 막 필 종셔호노라 ③글시도 괴약호고 외즈낙셔 마니 흐엿시니 ④보시는 지 지여 보시기를 바라나이다 ⑤보미 심회 츠약호도다”와 같이 번호 순서대로 행이 구분되면서 필사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①-⑤의 순서대로 읽으면 내용이 굉장히 어색하다. 그런데 ②-④를 먼저 읽고 ①과 ⑤를 나중에 읽으면 자연스럽게 뜻이 통한다. 필사자가 을사년에 필사를 끝내고 ②-④를 기록해 두었는데, 임자년에 그 부친이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죽은 딸의 필체임을 알고 ② 앞에 ①을, ④ 다음에 ⑤를 가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보고 선행 연구에서는 을사년인 1905년과 임자년

상권이 끝나는 부분(70장 앞)은 낙장인 듯하나 내용에는 빠진 부분이 없어 보인다. 상권 70장 앞면 끝 대목이 “...짐이 경히 전교하야”로 끝나고, 하권 첫 장은 “스흔코져 하더니 당연이 임의 뜻지 잇스면 더욱 아롭 다운지라”로 시작한다. 사재동 A본의 동일 장면을 찾아보면 “...짐이 경히 전교하야 사흔코져 하더니 당연이 임의 쓰지 이시면 더욱 아롭다운 디라”(4, 하 23a<sup>24</sup>)로 표기 몇 글자를 제외하고 차이나는 점이 없다. 따라서 사재동 B본은 결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보아 무방하다.

6 활자본 8회 以文堂 <리학사전>(이문당본)

표제는 ‘리학사전’이고, 내제는 ‘녀호걸 리학사전 女豪傑李學士傳’이며 1918년에 간행되었다.<sup>25</sup> 총 8회 회장본이고 목차는 없으며, 장회 제목과 함께 본문 내용이 시작된다. 한 면이 17행×35자로 인쇄되어 있고, 전체 67면이다. 그런데, <리학사전>은 63쪽에서 끝나고, 63-67쪽에는 <李提督東征時>라는 야담이 수록되어 있다. 결국 이문당본은 총 63쪽 분량인 셈이다.<sup>26</sup>

7 활자본 12회 회동서관 <리학사전>(회동서관본)

표제는 ‘리학사전’이고, 1-2쪽에 목차가 있으며, 본문은 3쪽부터 시작된다. 본문 내제는 ‘리학사전단 李學士傳全’이고 1925년에 간행되었다.<sup>27</sup> 전체 12회 회장본이며 장회 제목과 함께 본문이 시작된다. 한 페이지가

인 1912년에 필사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오류라 생각한다.

24) 4, 하 23a는 ‘사재동 A본 하권 23장 앞면’을 줄인 것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

25) 필자가 확인한 이문당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판권이 보이지 않아 류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1984, 437-438쪽에 있는 대정 7년이라는 판권을 보고 간행 연대를 확인하였다.

26) 장회 제목을 제외한 본문의 총 글자 수는 약 36,000여 자이다.

27) 필자가 이용한 자료는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活字本)古典小說全集』 제7권(아세아문화사, 1976)에 수록된 회동서관본 <리학사전>이다. 강진옥 교수는 앞의 논문, 80쪽에서 1935년 안동서관판 61면이라고 하였다.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는 <리학사전>은 회동서관 본으로 1925년에 발행되었다.

18행×35자로 인쇄되어 총 61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목차를 제외한다면 본문은 59쪽이다.<sup>28)</sup>

## (2) 善本 선정

7종의 이본 가운데 작품의 명칭을 살펴보면 후대에 전승된 것으로 보이는 ①은 ‘이학사전’이고, ②는 ‘이현경전(李賢景傳)’이며, ③은 표제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영인본으로 편찬하면서 ‘이현경전’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④와 ⑤는 표제가 ‘이형경전’ 또는 ‘이현경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제가 ‘니형경전’이다. 이처럼 작품의 명칭이 이본마다 각각 다른데, 현재 필사 시기가 가장 앞서 보이는 ②에 ‘이현경전’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8세기 소설 상황을 알려주는 <여와전>의 이본인 <文昌星平妖記>라는 작품에 “칠웅 되어든 니현경 등 칠인이 문무지지 겸전호고...”<sup>29)</sup>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니현경’으로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명칭은 성과 이름을 고려하여 ‘이현경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현경전>의 여러 이본 중에서 善本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필사되어야 하고, 완본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필사 간기로만 가장 앞선 시기를 확정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이본간의 대비를 통해 축약이나 첨가가 덜한 완본을 선본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①은 축약이나 변개가 심한 이본이고, ②와 ③은 완본이 아니며, ⑥과 ⑦은 활자본으로 후대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선본에서 제외된다.<sup>30)</sup> 남는 것은 ④와 ⑤인데, 이를 정밀히 대비하여 선본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이본간의 대비와 변개를 따져보고

28) 장회 제목을 제외한 본문의 총 글자 수는 약 35,500여 자이다. 이문당본과 비교하여 약 500여 자가 차이난다. 이는 修學 대목의 유무와 관련된다 할 것이다.

29)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文昌星平妖記>, 22장 뒷면.

30) 자세한 대비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자 한다.

④와 ⑤는 거의 동일본이라 할 수 있다. 장 수가 다른 이유는 한 장에 필사된 행과 글자 수의 차이이다. 두 이본간 어휘 차원을 제외하고 구절 단위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은 대략 16곳이다. 그 16곳도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문장 단위가 넘나드는 정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먼저, ④에는 있지만 ⑤에 없는 내용이 8곳이다. 이현경이 국구 왕세충을 탄핵하는 상소 장면 일부, 왕세충에 대한 임금의 처벌 장면 일부, 이학사가 왕의 미행시 자객의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장면 일부, 유각로가 조정 대신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일 때 별주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장면 일부, 이학사가 장시랑에게 별주를 권할 때 장연이 화를 내는 장면 일부, 어의가 이학사를 진맥하는 장면 일부, 어의가 이연경에게 이학사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장면 일부, 장연이 이학사에게 청혼하는 편지 대목 일부 등이다. 이 중에서 ④에 있는 【 】의 내용이 ⑤에서 생략되어 어색해진 곳을 예로 들어 본다.<sup>31)</sup>

- ㉠ 이현경이 국구 왕세충을 탄핵하는 상소 장면  
“...세충의 무상호물 다스려 죄 정히 호시고 국척방조호말 징계호 소셔 주호기를 막치면 안식이 식식호고 【스의 격결호니 천지 안식이 변호시물 찌닷지 못호시고】 만조빅관이 경아치 아니리업더라” (④, 상 11b-12a ; ⑤, 상 15ab)
- ㉡ 이학사가 왕의 미행시 자객의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장면  
“과연 후원 으리 두 즈기이 길의 숨어 황야의 미행을 기다리다가 잡피 복주호니 【일시 사람이 니형경의 선견을 항복호고 천지 더욱】 고틡니 녀이사 …”(④, 상 17b ; ⑤, 상 22a)
- ㉢ 어의가 이학사를 진맥하는 장면  
“공지 나아가 게요 붓드러 안치니 【티의 좁간 틱을 보고 물너나 신식이 경아호야 눈으로 좌우를】 도라보고 또호니 이후를 양구이 살피

31) ④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 】 부분이 해당 대목의 有無를 말하는 것이다. 이하 동일.

며 말을 아니커날”(④, 하 3ab ; ⑤, 상 47b)

㉔ 장연이 이학사에게 청혼하는 편지 대목

“군휘 규방 가운데 여학스 되다하니 소제로 햐야곰 간담이 무여지  
 닐듯 하 황홀하니 아모라타 못흔는 둥 쏘흔 탄식흔는 바는 【현후로  
 햐야곰 김히 지음을 일히시뉘 슬허히미라】 하날을 우려려 품슈그  
 룯뉘뉘 윈흔른 …”(④, 하 17b ; ⑤, 상 63b-64a)

다음으로, ④에는 없지만 ⑤에 있는 내용이 또한 8곳이다. 이학사의 남장을 주위에서 알지 못하는 대목 일부, 과거보는 장면 일부, 태의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대목 일부, 연경이 누이에게 신분 밝히기를 청하는 대목 일부, 장연이 이학사에게 청혼하는 편지 대목 일부, 천자가 이현경을 장연에게 시집보내기 위해 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 일부, 연경과 장소저의 결혼 장면 일부, 자객 장후영의 처가 황제에게 사실을 고하는 장면 일부 등이다. 이 중에서 ⑤에 있는 【 】의 내용이 ④에서 생략되어 어색해진 곳을 예로 들어 본다.

㉓ 이학사의 남장을 주위에서 알지 못하는 대목

“소제 팔구세부터 남당을 햐야 사랑전의 피셔시니 빅관이 다 이영  
 도의 아달노 알고 【그 얼굴 풍도를 사랑햐야 녀화위남흔물】 아지  
 못흔더라”(④, 상 2b ; ⑤, 상 3a)

㉔ 태의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대목

“티의 소왈 소의 비록 화티의 청나을 엇지 【못흔엇시나 편죽의 연  
 공은 비화느니 엇지】 그릇 올고 지존지귀흔신 공후 더신의 병을 경  
 만이 이라리오”(④, 하 4a ; ⑤, 상 48a)

㉕ 장연이 이학사에게 청혼하는 편지 대목

“쫓뉘현후는 규뉘쳐지요 연은 외간 남지라 니외 격흔미 만이갓  
 타야 못츄니 지음을 완전키 어려온지라 이들은 므옴이 방춘의 가득  
 하니 만일 【완전코져 햐실진디 쏘흔 어렵지 아니하니】 현휘 님의  
 동교의 글을 읊뉘미 읊고 니 쏘흔 남교의 숙여를 만나지 못흔여시  
 니…”(④, 하 18a ; ⑤, 상 64b)

㉖ 천자가 이현경을 장연에게 시집보내기 위해 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

“쓰기 맞고 거두어 올리려 흐더니 문득 보니 【상이 받쳐 당상서의 글을 보시느니라 심하의】 디경흐야 낫빛출 변흐더니 상이 당연의 글을 보시고 칭찬흐시며 또 니학스의 【시전을 가져다가 보시니 문법이 표일흐고 즈체】 쇠락흐야 당혹스의 시전의 더은디라”(4, 하 26ab ; 5, 하 6ab)

공교롭게도 4와 5 중에서 서로 빠진 곳이 각각 8곳이고, 생략한 곳이 빠지면 내용이 어색한 곳도 각각 4곳이다. 결국, 4와 5에서 내용이 생략되거나 첨가되는 것의 대비를 통해서 어느 이본이 선행하는 이본인지, 또는 어느 이본이 어느 이본을 보고 베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필사 간기만으로 어느 이본이 선행하는지도 확정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단국대본의 내제 가운데 ‘창을괴봉’이라는 제목이 있고, 4 역시 내제가 ‘니형경전 권지일 창을괴봉’으로 되어 있다. 단국대본이 결본이지만, 4와 5에 비해 내용이 충실하고 필사 시기도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글에서는 사재동 A본인 4를 善本으로 선정하고자 한다.<sup>32)</sup>

사재동본인 4와 5의 특징은 현전하는 필사본 <이현경전>의 이본 가운데 내용의 결락 부분이 없는 완본이라는 점,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남녀불균형이 지나치게 조장되어 있다는 점,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입공서사가 온전히 구사되어 있다는 점, 군담이 초반부에 위치하고 소략하다는 점, 이현경의 남장 노출을 둘러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결혼 이후 빛어지는 갈등 또한 장황하게 펼쳐진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후대 구활자본은 이 사재동본을 모본으로 하여 축소와 생략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사재동 B본을 선본으로 선정해도 무방할 것이나, 4와 5를 서로 보완하면 더 나은 선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3. 이본의 대비와 특징

이본 상호간의 대비를 위해 주요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서사 단위	사재동본 (④)	경북대본 (①)	단국대본 (②)	박순호본 (③)	활자본 (8회, ⑥)
1. 이현경의 출생(출생담)	○(×)	○(○)	○(×)	누락	○(×)
2. 이현경의 여화위담	개인 의지	부친 의지	개인 의지	누락	개인 의지
3. 이현경의 수학담	×	×	×	누락	○
4. 이현경의 과거급제	벗 답안 대신 작성	자신의 답안만 작성	벗 답안 작성	벗 답안 작성	벗 답안 작성
5. 왕세충의 유부녀 겁탈 사건 처리	○	○	○	축소	축소
6. 남경 주왕의 모반 정벌	○	○	○	○	○
7. 남만 선우의 정벌	이현경 활약	이현경 활약	이현경 활약	이현경 활약	이현경 활약 축소
8. 백관들 모임에서의 벌주논란	○	○	○	○	축소
9. 유모 장연에게 이현경 신분 밝힘	○	○	○	○	○
10. 신분 노출을 둘러싼 이현경과 장연의 신경전	○	○	○	○	○
11. 어의의 이현경 신분 인지와 갈등	○	장면 축소	○	○	장면 축소
12. 이현경이 백관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힘	○	악곡의 연주	○	○	귀거래사 읊음
13. 이현경의 사직소와 왕의 비답	○	축소	○	축소	○
14. 장연의 구혼서와 이현경의 거절 답서	○	○	○	○	축소
15. 왕이 글짓기 시합을 벌여 이현경을 장연의 베필로 삼음	○	축소	○	축소	축소
16. 이현경의 결혼	○	장면 축소	이하없음	축소	장면 축소
17. 위영(운영)의 이현경 모해와 본가행	○	축소		축소	축소
18. 자객퇴치담	○	○		이하없음	○
19. 이현경의 시가행 갈등	○	축소 및 확대			○
20. 장연과 고소저(공해량)의 결혼	○	장면 확대			○
21. 이현경과 장연의 화해	○	○			○
22. 후일담	△	△			△

(1) 필사본의 대비

① 경북대본(Ⅰ)과 사재동 A본(Ⅳ)의 대비

표에 제시된 것처럼 Ⅰ은 Ⅳ와 마찬가지로 주요 서사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Ⅰ이 전반적으로 Ⅳ에 비해 세부 내용에서 축소되어 있는 대목이 많다. 확장된 곳, 축소된 곳, 차이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Ⅰ에만 있거나 확장된 곳이다.

첫째, 소설 서두에 주요 인물에 대한 인정기술과 정보가 드러나 있다.

“화설 디명년간의 일위 지상이 이시니 성은 니오 명은 도영이라 ... 실동의 부인 왕씨 범가현문의 노도숙녀라 부뷔 화락호여 슬하의 일남일녀 이시니 소제가 맞지라 소제 잉티시의 왕부인 꿈의 문창성을 안아 품어 뵈더니 인호여 잉티호여 십삭만의 순산싱녀하니 산실의 이향이 만실호고 싱의 비범호니 남의 아니를 혐의치 아냐 일흠을 현경이라 호고 존는 즈덕이라 호고 당등보옥갓치 사랑호더니”(Ⅰ, 1권 1-2a)

부친은 이도영이며,<sup>33)</sup> 부인 왕씨가 소개되어 있고, 이현경의 태몽과 출생 및 이름과 字가 소개되어 있다. 주인공의 가계 및 배경 소개가 다루어진 것은 경북대 이본 뿐이다. 후반부에 가서 공해랑에 대한 소개도 자못 상세한데, 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물의 정보를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서술한다는 점이다.

둘째, 서사 단위 19에서 이현경을 張府로 다시 데려오는 과정은 Ⅳ에 비해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확장된 면모도 많아 주목된다. 3차에 걸쳐 벌어지는 갈등담은 같지만 세부 정황은 많이 다르다. 1차 방문에서 장연은 자존심이 강하고 유교의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현경을 꾸짖는 장면이 새롭게 부각되어 있으며, 여부인이 자신의

33) 1권 24b에 ‘니영도’로 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필사 오류로 볼 수 있다.

행위를 남편인 장시랑에게 사과하는 장면도 ㉠에만 있는 내용이다. 또한 3차 장시랑의 방문에서 보여 주는 인물과의 관계 및 정황은 ㉡에 비해 3배 가량 확대되어 있다. 장시랑이 왔을 때 딸이 반가워하는 모습, 사위에 대한 서운함, 시어버지에 대한 음식 접대 등 장면이 구체화되어 있고 인물의 성격이 생동감있게 제시되어 있다. 이현경이 시가에 돌아가 갈등이 마무리된 뒤 장소지가 친정에 근친하러 가는 장면도 ㉠에만 있으며, 여기서 이연경의 재취 사연을 들은 여부인이 섭섭해하는 대목도 실감나게 서술되어 있다.

셋째, 서사 단위 20에서 장연이 한림 고경전(혹은 공경적)의 딸을 후처로 맞이하는 대목 중 공혜랑의 인물 제시와 묘사가 생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에는 고경전이 1녀를 두었는데, 장연을 보고 상사병이 생긴다. 고한림이 직접 찾아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장시랑이 이현경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에는 인물에 대한 정보와 묘사가 상세하다. 즉 공경적은 산동인이고 4자 3녀를 두었는데 막내가 혜랑이며, 그녀는 단정치 못하고 겁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화가 상세히 전개됨으로써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공혜랑이 장연의 신분을 묻고 부친이 답하는 장면, 재취라도 시집가겠다는 딸의 대답에 부친이 책망하는 장면, 결국 울고 보채는 딸의 성화에 못이긴 공한림이 매과를 보내고, 장부에서 거절하자 공한림이 직접 장시랑을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여 겨우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이 ㉠에는 상세히 서술된다.

다음으로 축소 혹은 생략된 곳이다.

첫째, 서사 단위 11에서 어의에게 신분이 탄로난 이현경에게 아우 이연경이 여자로 돌아가 혼인하기를 원하는 대목이 ㉡에는 네 가지 꼭진하게 그 사유가 22행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에는 8행으로 축소되어 있다.

둘째, 서사 단위 13에서 이현경이 상소를 올리고 이를 읽은 천자가 감탄하면서 비답을 내리는 대목이 ④에는 모두 직접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①에는 이현경의 상소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천자의 비답은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서사 단위 16의 이현경과 장연의 결혼식 장면 및 이연경과 장소저의 결혼식 장면이 축소되거나 생략되어 있다. ④에는 상이 어전 풍류로 장후의 위의를 돕게 하고 이후의 결혼식을 제왕공주와 다름이 없게 하라는 대목, 장후가 길복을 입고 백마금안에 홍양산을 쓰고 만조 백관을 거느리고 혼례청에 당도하는 모습, 이후가 칠보단장한 수백 시녀의 호위를 받아 나오는 대목, 장후가 혼례청에서 이후를 엿보면서 가냘픈 모습과 전장에서의 용맹함을 대비시키는 모습, 좌우 관객이 바라본 장후와 이후의 대비 묘사와 감탄 등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①에는 이러한 내용이 1/3로 축소되어 있다. 더구나 이후 부중에서 두 사람이 결혼 초야를 치르고 다음날 이시랑 사당에 현알하는 대목,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광경, 이후가 구고께 폐백드리는 장면, 장시랑이 이후 위로와 이후의 여화위남을 사죄하는 대목, 젊은 부인네들이 자신들의 미모를 과시하려다가 이후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광경 등 약 35행 분량이 ①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이연경과 장소저의 결혼식 장면도 ④에는 있으나 ①에는 모두 생략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이본간 차이가 두드러진 곳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장의 주체가 다르다. 다른 이본에서는 대체로 현경이 자신의 의지로 남장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에는 “공이 탐혹과이호여 남으로 칭호고 셔현의 다리고 잇서 문즈을 가라치더니”(1권 2b)처럼 이현경 부친이 딸을 남아로 칭하고 데리고 다니고 있다.

둘째, 국가 법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바꾸고 있다. 서사 단위 4에서 이현경이 과장에 들어가 벗들의 과거 답안을 대신 작성하여 줌

로써 벗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대목이 ④에는 있다. 하지만 ①에는 이현경이 과장 구경만 하다가 글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신만의 답안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두 이본 모두 이현경이 글재주를 과시하는 대목이지만 과거 답안을 대신 작성해주는 모습을 ①은 의도적으로 없앴으로써 국가 법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셋째, 서사 단위 12에서 이현경이 사직 결심을 하고 만조백관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일 때, 다른 이본에서는 가사를 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①에는 태평가, 남풍가, 파연곡 등 악곡을 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서사 단위 19에서 이현경의 시가 귀가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힘겨루기 및 인물 성격 창조면에서 다르다. 시가 귀가를 둘러싼 갈등이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점은 같지만, 양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각 인물들간의 갈등 관계나 인물 성격 창조면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의 경우 ④에는 장연이 이현경을 찾아왔을 때, 문졸이 조롱하고 박대하자 장연이 칼을 뽑아 들고 내당으로 쫓아가 이현경을 나무란다. 그러나 도리어 이현경에게 꾸짖음만 당하고 결국에는 이연경에게 내쫓겨 본가로 돌아온다. 이 상황에서 장연과 하리들, 장연과 이현경, 장연과 이연경 등 여러 인물에 걸쳐 갈등과 대립이 대화로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①에는 장연이 찾아왔을 때 하리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시녀가 이현경의 정중한 거절 의사를 전한다. 그러자 장연은 이현경이 삼강오상을 모르고 온순한 덕이 없다는 점, 남편은 하늘이라는 인식, 여교를 부지런히 닦으라는 내용으로 이현경을 꾸짖는 말을 전하고 본가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의 경우 ④에는 바로 그 다음날 장연이 이후의 집에 다시 찾아가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이현경을 만나 계하에서 엎드려 사죄한다. 하지만 이현경이 부부의 예가 아니라 옛적 봉우의 도리로 접대한다. 장연이 전일을 뉘우치고 애달파하면서 누이를 만나고자 하나 누이동생이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①에는 10여 일 후 장연이 이후의 집에

다시 찾아오지만 거절당하고 돌아간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세 번째의 경우 ④에는 다음날 장시량이 직접 찾아가 설득해도 이현경이 강하게 거절하자 할 수 없이 장연을 머무르게 한 뒤 자신은 돌아간다. 장연이 이현경의 처소에서 눈물 흘리며 애걸복걸하여 이현경의 마음이 겨우 누그러지자 다음날 장부에서 이현경을 데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①에는 10여 일 뒤 장시량이 직접 찾아오자 이현경이 연경 부부와 함께 예로써 접대하고, 이어 장시량이 이현경을 설득하자 이현경이 사죄하고 허락하여 당일 채교를 타고 장부에 들어가 이현경과 여부인이 각각 서로에게 사죄하고 가족간의 인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다섯째, 서사 단위 20에서 장연의 재취를 결정하는 주체가 ④는 이현경이고 ①은 장시량이다.

고소저(공혜량)가 우연히 장연을 보고 상사병이 나서 장연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다. ④에는 고한림이 장시량을 방문하여 딸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가부장인 장시량은 아들 부부의 불화를 염두에 두고 며느리인 이현경의 의사를 먼저 묻는다. 이현경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당사자인 장연의 의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①에는 이현경의 의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한 가문의 가장인 장연의 부친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계층의 서열 의식을 중시하는 필사자의 질서 의식과 사회 관습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여섯째, 후일담 부분이 다르다. ①은 이현경과 공씨 및 장부인과 박씨의 후손 출생 사실과 자세한 이야기는 후록<sup>34)</sup>에 기록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지만, 이현경 죽음 전후의 상황은 모두 생략하였다. ④에는 이 후가 6자 1녀를, 고씨가 3자 2녀를 낳는 등 다산으로 서술되었다. 이어

34) “낭가의셔 무흠 환낙으로 디니고 니후의 즈녀의 남가녀혼호여 생즈신손이 계계 승승호고 기묘표호호 설화는 후록의 기록호였는고로 이 편의는 아니올니고 니후의 님신양명의 출장입상호여 전필승공필취의 명듀죽빅호고 화영인간 형적이 기이호고로 디강기록호노라 계묘팔월김필서”(①, 제2권 43ab)

장시랑 부부가 죽고, 이연경이 상국에 이르며, 장부인이 8자 3녀를, 박부인이 5자 6녀를 낳는 등 역시 다산이다. 이어 이연경 부부가 죽고, 이후가 80이 지나 자기 명정과 유서를 쓰고 죽음에 이르며, 끝이어 장연이 죽고, 이후와 장후의 자식들 꿈에 전생 신분을 알려주는데, 문창성과 태을진의 후신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경북대 이본은 정자의 궁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표현이 정제되어 있고 우아하며 인물의 정보가 상세하다. 서사 내용을 변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부 장면 묘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인물간의 관계가 세밀하고 성격 창조가 뛰어나다. 전반적으로 이현경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남성 인물의 자존심이나 가부장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② 단국대본(②)과 사재동 A본(④)의 대비

단국대본인 ②는 ④와 거의 동일하다. 앞에 언급한 ④와 ⑤에 생략된 16곳이 ②에는 모두 존재한다. 소설 서두에 이현경과 이연경을 소개할 때 다른 이본에서는 이현경을 먼저 소개하고 이연경은 나중에 언급되어 있는데, ②에서는 그 차례가 바뀌어 아들과 딸의 순서로 소개되어 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가끔씩 단어나 어절 혹은 문장 차원에서 누락된 곳이 보인다.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본다. ④의 【 】 부분이 ②의 ‘V’에 생략된 내용이다.

- ㉞ ④ : “서운을 종스흐라 하시니 이인이 전지 【를 밧즈오미 당연히 더경흐야 주왈 서운은 당물지】 지라 군민 정숙흐야 도적을 치려니와”(상 18a)/② : “서운을 종스흐라 하시니 양인니 전지V지라 군민 정숙흐야 도적을 치련이와”(18a)
- ㉟ ④ : “휘왈 【무슴 말이려요 공지 답왈 여츠여츠하니 엇지 놀납지 아니리오 휘 더경왈】 이 엇진 말고 당춧 큰 일이 나리로다”(하 4b)/② : “휘왈V이 엇진 말고 당춧 큰 일이 느리로다”(41a)
- ㊱ ④ : “옛글의 【일너시되 문의 들계 소리흐믄 슝름을 알게 흐미요

당의 〽오를계 눈을 두라지 아니른 사릅의 허물을 볼궤 두리니  
니”(하 21b-22a)//② : “옛글의 〽오를계 눈을 두르지 아이른 스릅  
의 허물을 볼가 두리미니”(58a)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④의 【 〽 〽 】 부분이 빠진 ②는 내용 전개가 어색하다. 하지만 한 문장을 초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필사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것이라 여겨진다. ④와 비교하여 ②에 첨가된 대목은 두 셋 정도이다. 예컨대, “학스 너렴의 불평허야 〽당학사 부중의 이라니”(④, 상 13ab)를 ②에는 “학시 내렴의 불평허야 【집의 안즈지 못허고】 당학스의게 가니”(13b)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형제 혼담허더니 현형이 〽참예허도다 학시 시양왈”(④, 상 13b)을 ②에는 “형제 혼담허더이 현형이 【이라니 한가지로 춤예허미 맛당허도다】 학시 스양왈”(13b)로 처리되어 있다. ②의 【 〽 〽 】 부분이 ④에 비해 추가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대목이 없더라도 사건 전개나 문장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다. 따라서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추가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②는 ④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누락되거나 첨가된 부분이 적으며 이본간 차이도 거의 없다. 따라서 두 이본은 동일 계열의 이본이다. 굳이 선후 관계를 따진다면 내용의 누락이나 첨가가 적고 필사 간기가 앞선다고 여겨지는 단국대본이 사재동본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사재동본과 달리 미완본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 ③ 박순호본(③)과 사재동 A본(④)의 대비

박순호본인 ③은 ②와 마찬가지로 ④에서 각각 생략된 구절과 문장들이 모두 있다. 이 점은 ③이 ④를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본을 보고 필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④와 비교할 때 ③은 사건 전개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단어, 구절, 문장, 단락 차원에서 생략이 빈번하다. 특히 이현경과 장연의 결혼식 대목

에서 많은 장면이 생략되거나 축소 서술되었다. 예컨대 천자가 이현경의 결혼을 성대하게 진행하라고 하교하는 대목, 장연이 길복을 갖추고 오는 장면, 이현경의 신부 복장 묘사 대목, 장연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 구고지례와 폐백하는 장면, 주위에서 이현경을 보고 감탄하고 경외하는 장면 등이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그리고 이연경과 장소저의 결혼식 장면 역시 축소 서술되었다.

위영과 관련된 대목에서도 생략과 축소가 빈번하다. 이현경이 장연의 집에 들렀을 때 위영이 이현경에게 감탄하는 장면과 교태부리는 장면이 축소 서술되었고, 훗날 이현경과 결혼한 장연이 위영에게 무관심하자 위영이 이현경에게 함분하는 대목도 간략히 처리되었다. 장연의 모친인 여씨가 위영을 편애하는 세부장면과 위영이 여씨에게 이현경을 무고하는 장면 역시 생략되거나 간략히 처리되었다.

이밖에도 장연이 진왕의 태사부가 되었을 때 이현경을 그리워하는 상사시를 짓는데, 이때 진왕이 이를 듣는 장면과 장연에게 사과하는 장면 역시 생략되었다. 이러한 생략이 서사 진행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편, ④에는 없으나 ③에만 있는 것이 두셋인데 대체로 세부 묘사와 관련된다. 예컨대 유모가 장연에게 이현경의 여화위남을 말하고 인연 이루기를 청하고 돌아가자 장연이 황홀해하며 잠 못 이루는 대목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④나 기타 이본에는 없는 장면 묘사이다. 그리고 이현경이 문연각에서 장번들다가 왕에게 시를 지어주고 갑자기 병들어 혼절했을 때, 장연이 이현경의 수족을 주무르며 구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다른 이본에는 없는 것이다.

## (2) 필사본(④)과 활자본(⑥)의 대비

활자본은 전반적으로 사재동본을 계승하되 부분적으로 경북대본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내용에서 약간 축소되어 있고, 표현 역시 달라진 곳이

있어 필사본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필사본과의 대비를 하기 전에 우선 두 활자본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두 활자본은 사건전개와 표현이 대체로 동일하지만, 단어, 구절, 문장, 단락 차원에서 서로 빠지거나 추가한 곳이 각각 보이는데 이것이 사건전개를 변개할 만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두 활자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현경의 수학담 유무이다. 이 수학담의 유무로 8회 활자본인 [6]과 12회 활자본인 [7]이 나누어지고 분량 또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선우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선우의 목을 베어 전공을 세운 사람이 [6]에는 양충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7]이나 필사본에는 이현경이 공훈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이현경의 부친이 [6]에는 리평도인데, [7]에는 리형도이다. 장연의 이름 역시 [6]에는 장연 혹은 장연수로 혼용되는데, [7]에는 장연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필사본과의 대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활자본 역시 필사본의 주요 서사 단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특정 장면에서 축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자주 보인다. 이문당 활자본([6])과 [4]를 서로 대비하되 추가된 곳, 축소 혹은 생략된 곳,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곳 등 세 항목에서 상호 비교해보겠다.

먼저, [6]이 [4]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곳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단위 3의 수학 대목이 [6]에만 존재하는데, 활자본 분량으로 약 2쪽이다. 제1회 앞부분에 부모가 구물하자 이현경은 장례를 치르고 옥천산 금룡동 청허산인에게 수학한다.

“...이곳에 삼년 인연이 잇기로 거두어 두나니 착실이 공부하라하고 그날부터 턴문디리와 룡도삼략이며 신출귀몰하는 법을 가르치고 칼 쓰는 법과 말 달리는 법을 전수하니 ... 일일은 선성이 현경을 불러 왈 네의 시운이 도라왔스니 급히 하산하여 평성지조를 시험하라 리두 북록이 면면하라 그러나 너 네의 소회를 지기하나니 정흔 고집을 도로혀 턴

정헌 인연을 억의지 말나하고 또 보검 하나홀 주며 왈 이 칼은 지극헌  
보비니 일노 전진에 나아가면 조화무궁하니 잘 쓰라”(〔6〕, 3쪽)

이곳에서 이현경은 천문지리, 육도삼략, 칼 쓰는 법, 말 달리는 법 등 무공을 익혀 나중에 외적을 정벌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그리고 전해받은 보검은 훗날 자객으로 침입한 장후연을 처벌하는데 긴요하게 쓰인다. 나아가 청허산인은 이현경에게 하늘이 정한 인연을 어기지 말라 하며 장연과의 인연을 암시한다. 결국 이 수학대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건과 긴밀히 조응함으로써 소설의 필연성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에는 이 수학 대목이 없는데 뒤에 이어질 서사 내용과의 조응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활자본에서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사 단위 7에서 선우를 정벌할 때 만왕의 목을 베어 공훈을 세우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다.

“(번왕이)…바로 당원슈를 취하니 니원쉬 보다가 정광검을 춤추어 바로 번왕을 마즈 더전할시 슈합이 못흐야 검광이 빛나며 번왕의 머리 마하의 썩러지거날…”(〔4〕, 22ab)

“…바로 당원슈를 취하니 선봉장 량충은 만부부당지용이 잇는지라 원슈의 호령을 듯고 칼을 춤추어 만왕으로 싸화 이십여합에 량충의 칼이 번듯흐며 선우의 머리 싸에 썩러지거늘…”(〔6〕, 14-15쪽)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4〕에는 이현경이지만 〔6〕에는 양충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개선한 뒤 논공행상을 할 때도 양충은 등장한다. 즉 개선하여 왕이 치하할 때 장연이 현경의 신기한 묘책과 양충의 용맹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올린다. 그리하여 왕이 현경에게는 청주후를, 장연에게는 기주후를, 양충에게는 표기장군이라는 작록을 내린다.

다음으로, 축소 혹은 생략된 곳이다.

〔6〕이 〔4〕에 비해 대체로 축소되거나 생략된 곳이 많다. 이러한 대목은

장면 묘사, 인물 외양 묘사, 인물의 심리 서술, 대화, 수식이나 부연 설명, 사물을 설명하거나 그 이유를 서술하는 경우 등이다.

장면 묘사에서 축소된 곳은 이현경이 과장에서 글 짓는 장면, 왕세충의 겁탈 사건과 관련하여 천자가 당사자들을 불러 물은 뒤 상벌을 내리는 대목, 이현경이 왕세충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근거로 오륜의 중요성과 국가법도의 기강 문제 및 옛 고사 등을 거론하는 장면 등이 ④에는 있지만 ⑥에는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그리고 결혼식 장면, 특히 이현경과 장연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은 대폭 축소되었다. 상이 제왕공주와 함께 하라면서 지극한 은총을 보이는 대목은 생략되었고, 결혼식 장면, 신부 복색 묘사, 장연의 감탄 및 심리 서술 등은 대폭 축소되었다.

인물의 외양 묘사가 축소된 예로는 왕세충에게 겁탈되어 가던 유안의 처 경씨가 바라본 이현경의 외양 묘사, 운영이 바라본 이현경의 외양 묘사 등이다. 인물의 심리 서술이 축소된 곳으로는 운영(위영)이 이현경을 보고 감탄하는 내적 심리, 어의 정오문과 이연경의 대화 및 이연경의 심리 서술 등이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수식이나 부연 설명이 축소된 곳으로는 유각로가 조정의 관료를 청해 잔치를 벌일 때 이현경이 칭명하다가 겨우 참석하였을 때 별주를 내리는 논란이 벌어진다. 서술의 뼈대는 동일하지만 수식이나 부연 설명에서 ⑥이 간략하다. 또한 연경이 누이에게 남자로서 종신하지 못할 네 가지 이유를 기술하는 대목 역시 ⑥에는 간략히 그 까닭만 서술되어 있는데 비해 ④에는 그 근거가 부연 설명되어 있다. 이밖에도 문연각 태학사의 당번 설명이 ⑥에는 생략되었으며, 이현경이 사직표를 올릴 때 왕의 비답 내용이 축소되었고, 이현경의 신분을 알게 된 장연이 구혼의 편지를 보낸 사연과 그 전후 사정과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었으며, 장연이 보낸 구혼서에 대한 이현경의 답서 역시 축소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이본간 차이가 두드러진 곳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현경이 능력이 축소되고 그 결과 남성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드러난 곳이다. 과거에 급제한 인물을 ④에는 이현경만 묘사하고 있는데, ⑥에는 이현경과 장연 두 사람의 외양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남만 선우를 징벌할 때 ④에는 이현경이 번왕의 목을 베는 활약 장면이 있지만, ⑥에는 이현경의 활약은 보이지 않고 장연과 양충의 활약, 특히 양충이 번왕의 목을 베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면모는 ④에서 이현경이 활약하는 장면이 ⑥에 이르러 축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성영웅의 활약이 감소된 인상을 준다. 나아가 장연이 개선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걱정하고 탄식하는 대목이 생략되었고, 장연이 이현경을 칭찬하는 대목 역시 축소 서술되었다.

둘째, ④에서 표현된 심각한 남녀 갈등이 ⑥에는 완화되어 있다.

문연각에서 당번할 때 장연이 이현경에게 지기로 사귀기를 다시 요청하며 비는 장면이 ④가 가장 강하고 ⑥에는 그 강도가 약하다. 남자의 체면을 증시하거나 남성독자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장연이 이현경의 가슴을 강제로 보려다가 밀침을 당하는 대목의 표현 역시 그 강도가 ④가 가장 강하고 ⑥이 약하다. ④에는 “(휘)손을 흔 번 밀치니 연이 뜻아리 것구러져 겨우 이러는 다시 나아가고져 혼디”처럼 남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⑥에는 “리후 우스며 손으로 밀친디 장후 안젧다가 다시 가고져 흐거늘”과 같이 점잖게 표현되어 있다.

셋째, 장연이 이현경을 본부로 데려오기 위하여 처음 방문하였다가 연경에게 쫓겨나 돌아왔을 때 장연이 스스로 자책하는 장면과 독백장면이 ④에는 있지만, ⑥에는 생략되었다. 두 번째, 또 찾아갔을 때에도 ⑥에는 공손히 청죄하는 등 완곡한 사죄이지만, ④에는 계하에 복지하고, 졸부 장연이라 표현하는 등 남성의 굽힘이 심하다. 더구나 장연이 이후에게 애걸복걸하며 다섯 번을 빌어 상 아래에서 겨우 잠을 자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필사본에는 남성의 낮춤이 아주 상세하지만, ⑥에는 축소 생략되었다.

넷째, 문체의 차이나 서술의 태도에서도 두 이본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장연의 구혼서에 대한 이현경의 답서를 보면 ④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당당한 서술태도를 지니면서도 예사체의 문체로 표현되어 있지만, ⑥에는 여성이 자신을 낮추고 공경의 서술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지만 첫날밤 이후가 장연에게 글짓기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할 때도 ④에는 명령의 어투를 사용하지만, ⑥에는 공손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현경이 위영을 징치하고 곤장을 치고 나서 ⑥에는 이후가 장연에게 사죄하는 대목이 있지만, ④에는 사죄 대목이 없다.

다섯째, 장연의 재취를 결정하는 혼사의 주체 면에도 약간 다르다.

⑥에는 공전이 장연에게 딸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혼인을 청하자, 장연이 이현경에게 사정을 말하고 의사를 물은 뒤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에는 고한림이 장시랑에게 장연의 재취를 청하자, 장시랑이 이현경에게 사정을 말하고 의사를 물은 뒤 이현경의 허락을 받아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사자인 장연의 의사는 없다.

이밖에도 이현경이 벼슬 사직을 결심하고 조정의 백관을 초청하였을 때 부른 가사가 ④에는 옛 가사를, ⑥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었다는 대목이 차이이며, 후일담 대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sup>35)</sup>

지금까지 살펴 본 활자본 <이현경전>은 사재동본과 경북대본을 계승하되, 이현경 수학담의 유무에 따라 다시 8회본과 12회본으로 나뉘어져 있다. 8회본은 이현경 수학담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양충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다. 활자본 역시 장면이나 인물의 세부 묘사에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남녀간의 갈등이 필사본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며 남성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서술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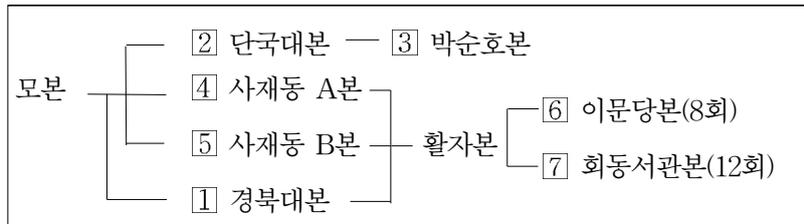
35) 강진욱, 앞의 논문, 81-82쪽 참조.

#### 4. 이본의 계열과 변모

<이현경전>은 후대까지 필사본으로만 전승되다가 1910년대에 이르러 활자본으로 유통되었을 뿐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본 대비 결과 필사본 내에서는 단국대본, 사제동 A·B본은 문장 차원의 넘나들을 제외하고 이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순호본은 앞의 세 이본에 비해 생략과 축소가 이루어지긴 했어도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경북대본은 향유층의 독특함으로 인해 필사본 이본 중에서는 가장 특이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본간의 친소관계를 따져 이본의 계열을 추정해 볼 수 있다. 7종의 이본을 대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②, ③, ④, ⑤의 친연성인데, 이들은 동일 모본에서 파생되어 나온 동일 계열의 이본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③은 ②를 바탕으로 하여 축소와 생략이 이루어진 듯하다. ④와 ⑤에 각각 생략된 부분이 ③에는 모두 있기 때문에 ③이 ④와 ⑤를 모본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②에는 ③에서 생략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이본만을 놓고 볼 때 ③은 ②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북대본인 ①은 필사본 이본 중에서는 독특한 것으로 ②, ④, ⑤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궁중에 유입되어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별도의 계열로 삼을 수 있다.

활자본은 ④나 ⑤를 계승하되 경북대본을 참조한 것 같다. 앞장의 표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주요 서사 단위는 대체로 거의 동일하지만 부분적으로 묘사에서 축소의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장면이 공혜랑을 맞이하는 대목에서 ‘공혜랑’이라는 이름이 경북대 이본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활자본은 사제동본과 경북대본의 영향을 받되, 수학 대목의 유무에 따라 8회 이문당본 계열과 12회 회동서관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질곡적인 삶을 벗어나 영웅적인 활약상을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 염원과 고민을 다각도로 표현해 놓음으로써 후대 소설에 영향을 끼친 이 작품은 그 주제의식적인 면에서는 이본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후대 한 두 종의 이본에서 부분적인 변모를 제외하고는 이본간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본 차이가 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이현경전>이 초기 작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현재까지 알려진 필사본의 이본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 존재하는 이본이라 하더라도 내용상 변개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필사본으로만 전승되었기에 필사 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첨가와 생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단락의 출입이나 새로운 내용의 첨가와 같은 의도적인 변개가 적게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소설 내적인 면에서 대중적인 흥미가 후대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인기에 밀려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본간 차이가 심하지 않은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여성영웅소설이라 하더라도 애정담이 복합된 <김희경전>이나, 남녀 균형이 이루어지고 남성 역시 활약하는 <홍계월전>의 경우는 이본의 변개가 심하다.<sup>36)</sup>

36) 이에 대해서는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및 「<홍계월전> 이본 재론」(『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을 참조.

이 점은 독자 대중들의 통속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활발하게 전승되면서 내적인 변모도 심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인물의 활약, 문체 등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변모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건의 측면에서 주요 서사 단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뚜렷한 것이 세부 장면이나 인물 묘사에서 생략이나 축소 경향이다.

앞의 서사 단위 11, 13, 15, 17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은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축소되는데, 특히 결혼과 관련한 대목이 심하다.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남녀의 갈등 관계에 주된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현경전>의 경우 느슨하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결혼 장면과 아기자기한 세부 묘사 대목이 모두 축소되었다. 반면에 주왕의 반란을 평정하고, 선우를 정벌하며, 자객 장후연을 처치하는 군담 대목에서는 축소나 생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결혼식 장면이 독자들에게 흥미를 잃었고, 군담이나 자객과의 대결이 흥미진진하여 모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영웅소설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부장양문록>이나 <김희경전> 같은 여성영웅소설은 오히려 결혼 장면이 확대되고 세부 장면 묘사가 치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작품의 성격과 독자층, 그리고 활자본의 경우는 출판사측의 출판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부장양문록>이나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 못지 않게 남녀 결연의 애정담적인 요소가 강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같은 여성영웅소설 내에서도 독자층의 성격에 따라 군담을 중시하는 독자에게는 군담이 확대되었을 것이고, 애정을 중시하는 독자를 고려한다면 세밀한 결혼 과정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필사본에서 활자본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었을 것이며,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

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인물 관계의 변모이다. 초기 필사본인 ②·④·⑤의 경우 여성이 우월하고 남성이 열등한 관계가 부각되어 있으며, 여성의식 또한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①에는 여성우월 남성열등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남성의 체통이 강조되거나 부각되어 있다. 예컨대, 이현경의 시가행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에서 기존 필사본에는 이현경의 도도하고 강한 면모가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본에는 장연이 사죄하고 계하에 복지하여 졸부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지만, ①에는 모두 생략되었고 도리어 이현경의 무도함을 장연이 꾸짖고 있다.

“너의 쥬군이 삼강오상을 모르며 너즈의 온순흔 덕이 업스니 가히 한 심흐도다 니 권귀코져 왔더니 말이 무례흐므로 도라가느니 네 부인귀 주흐라 남복의 분쥬홀제 원용상장이 되여 적장의 머리 버히기를 낭둥취 들흐듯 흐엿시나 중신토록 당가은 버리지 못홀지니 니 비록 졸흐나 그 디게는 쇼턴이요 그디 현숙흔 부인 어드라흐므로 어드며 말나흐므로 말 나 삼가고 조심하여 너교를 검술 빗듯 힘빠 부즈런이 비홀지어다”(①, 2 권 29b~30a)

인용문에서 장연은 비굴하고 왜소한 남성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존심 있는 남성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장연의 부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장연의 부친이나 장연의 역할은 다른 이본과 달리 ①에는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부장제의 질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①은 상대적으로 여성중심적인 시각은 감소되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남녀불균형을 후대에 수용하면서 남녀균형의 미학으로 바꾸려는 의도, 초기 필사본의 난삽함을 정제하고 가다듬으려는 의도, 나아가 필사자의 신분이나 향유층의 특수한 신분 계층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북대 이본에서 유독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화되어 나타난 이

유는 무엇일까. 사회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결과가 아니라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소설을 향유한 집단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경북대 이본이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왕실과 관련된 독자층을 고려한 필사자의 의식 투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왕실과 관련된 소설이기에 대체로 남성중심적 서술 시각이 강화되고, 가부장의 역할 강조와 권위가 회복되고 있으며, 유교 이념의 강화와 지배 질서의 수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활자본인 ⑥에도 여성우월 남성열등의 기조가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의 체통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급제에서 필사본인 ④가 이현경의 인물만 묘사하지만 ⑥에는 이현경과 장연 모두 서술하고 있다. 특히 남만 선우를 정벌할 때 ④에는 이현경이 활약하는 장면이 있지만 ⑥에는 이현경의 활약이 없고 새로운 인물인 양충의 활약이 있다. 그리고 ④에 장연이 개선하여 자신을 낮추고 이현경을 추켜세우던 대목을 ⑥에는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여성우월 남성열등과 관련하여 여성의식 역시 후대로 가면서 변모하고 있다. 초기 필사본에는 이현경의 여성의식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면모가 약화되어 있다. 예컨대, 유모가 이현경에게 여자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을 때 이현경이 남장으로 종신할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대목이 ④에는 강하다. 그런데 ①이나 ⑥에는 이러한 면모가 축소되어 있다. 훗날 이현경이 여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을 때 안타까워하는 면모도 ④에는 감정과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는데 비해 ⑥에는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여성의 자아의식이 약하게 서술되었다.

다음으로, 문체 및 표현의 변모인데, 초기 필사본의 경박한 어투가 후대에는 공경의 문체로 변화하고 있다. 즉 ④에는 정제되지 않은 생경한 언어와 직설적인 어투가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①에는 언어가 정제되어

있고 한문 문자가 구사되어 있다. ⑥은 ①과 같은 우아한 언어는 구사되지 않고 있으나 ④에 비해 정제되고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경박한 어휘나 거친 표현을 지양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①에 사용된 언어이다. ①에는 점잖고 우아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특히 궁중 예법과 국왕과 관련된 인물에게는 경칭과 예를 갖추어 표현하고 있다. 천자나 왕을 직접 높일 때 사용되는 ‘-시-’는 물론이고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궁중의 법도에 익숙한 성정이 글자에 반영되어 정제미와 균제미를 갖춘 이본으로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습-, -줍-’ 등과 같은 객체높임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필사한 사람의 특수한 신분 의식이 고려된 결과이며 또한 그 수용층을 고려하여 문체나 표현이 점잖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①을 필사한 사람은 궁체에 능한 궁인 신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궁체를 전문으로 書寫한 궁인 계층은 왕족에게 시중드는 임무를 가진 여성으로서 궁녀 중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밀나인이나 상궁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이들은 왕을 비롯한 상전에게 공경으로 충절을 다하는 신분적 특수성을 지닌다. 게다가 궁체는 전문적이면서 오랜 수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우러나온 글자체이자 궁인들의 정신 세계가 담겨져 있다. 그러기에 궁체로 필사한 경북대 이본에는 왕궁과 관련한 용어에 익숙하고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제되고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체 및 표현의 특징은 소설의 내용 전개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및 상호 관계에서 인물간의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박한 태도에서 점잖은 태도로 변모시켜 놓고 있다.

37) 최영희, 「한글 궁체의 미학적 고찰 - 조선시대 궁체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8쪽.

## 5. 맺음말

이 글은 <이현경전>의 이본을 소개 검토하여 善本을 선정하고, 주요 이본을 대비하여 계열을 살펴본 뒤 후대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필사 시기가 앞서 보이는 이본 제목에 <이현경전>이라 되어 있고, 18세기 소설 상황의 한 모습을 알려 주는 문헌에 ‘니현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의 명칭은 <이현경전>이 바람직하다. <이현경전>의 善本은 완본의 형태를 지니고 다른 이본에 비해 오탈자나 첨가가 적은 기축년에 필사된 사재동 A본이 타당하다.

주요 이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재동본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남녀불균형이 지나치게 조장되어 있고,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입공서사와 부부 갈등담이 온전히 구사되어 있으며, 이현경의 남장 노출을 둘러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결혼 이후 빛어지는 갈등 또한 장황하게 펼쳐진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경북대본은 정자의 궁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표현이 정제되고 인물의 정보가 상세하다. 세부 장면 묘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물간의 관계가 세밀하고 성격 묘사가 생동적이다. 전반적으로 이현경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우월하지만, 남성 인물의 자존심이나 가부장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단국대본은 <이현경전>의 여러 이본 중에서 내용이 누락되거나 첨가된 부분이 가장 적고 필사 간기가 앞선다고 판단되지만, 완본이 아니라는 것이 단점이다. 활자본은 이현경 수학담의 유무에 따라 8회본과 12회본으로 나뉜다. 8회본은 이현경 수학담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양충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다. 활자본 역시 장면이나 인물의 세부 묘사에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남녀간의 갈등이 필사본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며 남성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현경전>은 창작 당시의 실상은 알 수 없지만 가상의 모본에서 전승되어 단국대본, 박순호본, 사재동 A·B본이 한 계열을 이루며, 경북대본이 또 한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활자본은 사재동본을 계승하되 경북대본을 참조하여 다시 8회본과 12회본 두 계열로 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작품은 이본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다.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이현경전>이 초기 작품이고, 대중적인 흥미가 후대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인기에 밀려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갈수록 변모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작품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사건은 후대로 갈수록 세부 장면 묘사에서 생략과 축소가 빈번하다. 그리고 인물 형상은 초기 필사본의 강한 여성 우월과 남성 열등의 면모가 후대에도 지속되지만, 상대적으로 후대 이본에서 남성의 체통을 강조하거나 남성 인물이 부각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여성의식 또한 초기 필사본에는 강하게 부각되다가,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면모가 약화되고 있다. 문체 및 표현에서도 초기 필사본의 정제되지 않은 경박한 어투가 후대에는 정제되고 순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李學士傳>,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이형경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고전자료실 소장.  
<이형경전>, 박순호 교수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제40권, 오성사, 1986)  
<이형경전>, 사재동 교수 소장 94장(사재동 A본)  
<이형경전>, 사재동 교수 소장 114장(사재동 B본)  
<리학사전>, 활자본 8회 以文堂 (이문당본)  
<이학사전>, 활자본 12회 회동서관 (회동서관본)  
<文昌星平妖記>,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 강진옥,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73-121쪽.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5쪽.  
류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1984, 437-438쪽.  
박은화, 「「이형경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1-125쪽.  
사재동, 「이형경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54쪽.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2003, 246-262쪽.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247-275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207-234쪽.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37-275쪽.

-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247-277쪽.
- 조용호, 「개화기 국한문소설 <여영웅> 연구」,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7-351쪽 참조.
- 최영희, 「한글 궁체의 미학적 고찰 - 조선시대 궁체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1-81쪽.

<Abstract>

## The study of <LeeHyunKyeongJeon> texts

Lee, Byong-Jik

This theme is to aim to choose <LeeHyunKyeongJeon> texts and verify the properties of the main texts and examine the changing aspects in the later ages.

It is rational that this writing's title is <LeeHyunKyeongJeon>. That's because <LeeHyunKyeongJeon> is the earliest work title in the publishing period. Also the character of <LeeHyunKyeongJeon> appeared in the 18th century.

<SaJaeDong>A is the best literature among the texts of <LeeHyunKyeongJeon>. This work contained all the stories. It had few mistakes and didn't add anything to the sto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texts are as follows. <SaJaeDong> text had the complete properties of heroines' novels in the early age. As KyeongBookDae text was read in the palace, it emphasized men's self-esteem and patriarchy thinking. The printing books are divided into 8th and 12th sections. The fact that LeeHyunKyeong was studying was presented in the 8th section. But the later texts didn't contain the story too much.

<LeeHyunKyeongJeon> consisted of two aspects. DanKookDae, ParkSunHo, and SaJaeDong formed one group. The other one was KyeongBookDae text. Printing text was made in reference to SaJaeDong and KyeongBookDae text.

This work was the early heroine's novel. But this work ran short of the interests and exciting parts. So people didn't read this book. As time went by, many things in the work have changed a lot. The accident of the story was diminished. It focused on male character. And also the writing style was changed into a respect manner of talking.

Key Words : LeeHyunKyeongJeon, SaJaeDong text, KyeongBookDae text, Printing text, Good text, Text change

- 논문접수 : 2009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09년 11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1월 10일